

영광군 '군민 평생연금 실현' 첫 걸음 뒀다

해상풍력 발전사업협회 출범... '이익공유제' 등 추진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짐

영광군이 선도해서 추진 중인 '군민 평생연금' 시대를 열어 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영광군은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상생을 목표로 '영광군 해상풍력 발전사업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협회는 안마해상풍력(주) 회장사에, 한화오션(주)을 부회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총 17개 사업자로 구성됐다.

참여 사업자들은 영광을 기점으로 한 영해와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 참여 17개사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정착'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정책

'규제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기술·안전 분야 협력' '사업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해상풍력 창출 수익을 영광군민과 공유하는 '군민 평생연금 시대' 실현을 목표로 발전사업 이익공유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영광군과 해상풍력 발전사업협회는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상풍력 관련 제도개선, 기술 표준화, 지역 기업과의 협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광민 영광부군수는 "발전사업협회는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안마해상풍력(주) 등 총 17개 사업자로 구성된 해상풍력 발전사업협회가 출범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여성 농업인 검진비 지원 진도군, 22만원 중 90%

진도군이 올해 여성 농업인의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진도군이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51~70세 여성 농업인이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고 내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질환, 심혈관계질환, 골질 위험도 등 총 5개 영역의 10개 항목이다.

1인당 검진 비용 22만원 가운데 90%인 19만8000원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을 제외한 2만2000원은 자부담이다.

검진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한 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진도군과 계약한 목포시 닷365내과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군 '신활력플러스 혁신파크' 개소... 농촌 자립 기반 구축

명현관 군수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가공 등 플랫폼 역할" 기대

해남군은 신활력플러스 혁신파크 개소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촌에 구축된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는 총 7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폐교된 황산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혁신파크 내에는 유기가공공방과 사무실, 밀키트공방, 스튜디오실 등 혁신파크 본관, 생태순환센터(육묘장) 등이 들어섰다.

개소식에서 명현관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를 통해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고 '농어촌수도 해남'의 비전을 수립하는 원년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의 전초기지이자 플랫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명현관(왼쪽 세번째) 해남군수 등이 혁신파크 내 유기가공공방을 둘러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7년 연속 '문학상주작가 사업'

7개월간 국비 2290만원 지원... 이달 중 상주작가 공모

해남군은 땅끝순례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25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7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전국 문학진흥의 주요 거점인 도서관, 작은 서점, 문학관 등 문학기반시설에 작가를 상주시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지역문학의 활성화와 작가 창작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전국에서 총 77개관이 선정됐으며, 땅끝순례문학관은 작가와 상생하는

차별화된 문학 프로그램으로 7개월간 총 229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4월 중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상주작가 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상주작가는 5월부터 11월까지 땅끝순례문학관에서 근무하며, 근무기간 동안 백련재 문학의 집 집필실을 제공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해남군 관계자는 "땅끝순례문학관은 매년 상주작가 사업을 통해 문학이 일상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군민들과 나누고 있다"며 "올해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월드고속웨리(주)는 지난 27일 목포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5 목포 1호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을 가졌다.

목포 씨월드고속웨리, 사랑의 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국내 제주기점 항로 1위 선사 씨월드고속웨리가 '나눔명문기업' 반열에 올랐다.

씨월드고속웨리는 목포 소재 기업 중 올해 첫 번째로(2025년 목포1호) '나눔명문기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속한 기업이 참여하는 고액 기부 프로그램이다.

씨월드고속웨리는 매년 목포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에 이어 지역 사회 인재를 위한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쾌척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이종훈 대표는 "나눔 명문기업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월드고속웨리(주)는 매년 목포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쾌척하고 있다.

혈액연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가치 나눔 프로젝트, 보호시설 아동 초청 제주도 사랑투어, 범죄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며 나눔명문기업다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목포시 "청년들 마음껏 창업하세요"

원도심 보광동에 '인큐베이팅 플랫폼' 준공돼 상업 공간 제공·창업 교육·네트워킹 이벤트도

목포시가 청년창업을 통한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목포시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은 목포시가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17억 7000만원(국비 49억 1000만원·시비 68억 6000만원)을 투입해 조성한 창업 지원 시설이다.

목포 원도심 보광동 1가 1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플랫폼은 본관동과 삼동으로 구성돼 있다.

본관동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과 회의 공간을 제공하는 4층 규모로, 다양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동은 1층에 마련된 상가 7개실로, 실제 상업 공간을 지원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영광군, 하수도 국비 100억 추가 확보...사업 조기 완료 탄력

홍농·법성 정비사업 등...올해 374억 들여 9건 추진 중

영광군이 하수도 기반 시설 조기 구축에 필요한 국비 추가 예산을 전남 사·군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이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영광군은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

도 기반 시설 3개 사업 추진에 쓰일 국비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앞서 영광군은 올해 374억원(국비 2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9건의 하수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사업 구간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 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장세일 군수가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비 추가 배정을 건의한 결과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는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2단계) 50억원'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원' '홍농 칠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0억원'이다.

해당 사업 구간은 국비 추가 확보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영광군은 현재 추진 중인 3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비롯해 내년까지 오수관로 47.36km, 배수 설비 1124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이 어려워 있지만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한 결과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영암물 '봄맞이 새단장' 20% 할인

1~14일 212개 농특산물...신규회원 이벤트 등 풍성

영암군이 봄을 맞아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인 '영암물'을 새단장하고 20% 할인판매하며 손님 맞이에 나섰다.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봄맞이 새단장으로 영암물은 '영암물 한눈에 보기' 항목을 추가해 영암군 대표 농특산물을 이용자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영암물은 1~14일 2주간 전 품목 2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휴대폰 앱을 활용한 온라인 간편 결제서비스도 도입해 이용자의 대금결제 편의를 더했다.

나아가 신규회원 가입, 리뷰 작성,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로 풍성한 혜택도 제공한다.

현재 영암물에는 92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친환경 쌀, 한우, 고구마, 대방감 등 212개의 신선한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암물을 새롭게 개편했다"며 "이번 할인 판매 등을 활용해 영암물에서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